Vol.025

SUNGWOO
HITECH
MAGAZINE

별을 쏘다

2022+Spring

호랑이 기운으로 "어흥!"

2022 COVID19 OUT!

성우하이텍

CONTENTS

Vol.025 2022+SPRING

SUNGWOO
HITECH
MAGAZINE

06
TOP NEWS

10
NEW FACE

18
EDUCATION

28
CHALLENGE

04 ISSUE & NEWS

06 TOP NEWS

- 이명근 회장 제39회 부산산업대상 '특별공로 부문' 수상

08 NEW SUNGWOO

- (주)성우하이텍, 미국 전기자동차 공장 설립

10 NEW FACE

- 2022년 공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현장
- 뉴페이스 성우인들이 말하는 나

18 EDUCATION

- 협업 리더를 위한 진중한 고민의 시간
  - 2021 승진자교육
- 상장사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고민하다
  -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 글로벌 성우인의 내실 다지기 성우하이텍 사내 영어 출강 교육

28 CHALLENGE

- 부산마라톤대회를 함께한 세 남자의 유쾌한 주말
  - 이재현 대리, 공경록 사원, 이현준 사원
- 도전의 DNA를 깨워준 언택트 트레킹 챌린지
  - 김성규 조장의 챌린지 수행 일지

34 COLUMN

- 소통의 3가지 키워드 정보 격차, 신뢰, 성장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홍보동영상을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성우하이텍 홍보동영상과 사가 공연을 만나보세요.

호랑이 기운으로 "어흥!"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38
SUNGWOO PEOPLE

48
GOING

54
SOCIAL CONTRIBUTION

58
NOTICE

38 SUNGWOO PEOPLE

-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성우라는 기적을 만나다
  - 첫 번째 이야기: 오준택 이사
  - 두 번째 이야기: 정준오 차장

44 MOVIE

- K-콘텐츠, OTT 시장에서 날개를 달다

48 GOING

- 골목골목 틈새마다 새겨진 이야기

54 SOCIAL CONTRIBUTION

- 위기의 시대를 비추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
-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A to Z

58 NOTICE

- 화사한 분위기로 업그레이드
  서창 본사 식당 리뉴얼
- 성우하이텍의 45년 역사를 찾습니다

별을 쏘다

발행일 2022년 2월 4일 (통권 제25호) **발행인** 이명근 **사보기자**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정보사업본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줌 (Tel. 051-623-1906)

01. 이명근 회장, 부산산업대상 특별공로 부문 수상

관련 기사
06p

이명근 회장이 제39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 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1월 26일 11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열린 '제39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이명근 회장이 44년간 ㈜성우하이텍을 전 세계 36개 사업장, 1만 7천여 명이 근무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각종 장학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 부문'을 수상했다.

02. 미국 테네시주 텔포드 신규 공장 설립

관련 기사
08p

㈜성우하이텍이 미국 테네시주 텔포드에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성우하이텍은 2017년에 미국 디트로이트 지점을 두고 현지 진출을 준비하여 왔으며, 21년 4월에는 미국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하여 224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하였다. ㈜성우하이텍은 미국 공장을 통하여 현지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GM 본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에도 납품할 예정이다.

03. 응급조치 공로자 시상 및 오준택 이사 복귀 환영행사 개최

관련 기사
38p

9월 15일 11시, 서창공장 공감룸에서 오준택 이사(신차품질사업부장) 복귀 환영행사를 개최하였다. 오준택 이사는 지난 4월 21일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병원 진료 및 재활치료를 마치고 9월 1일부로 복귀한 바 있다. 발병 당시 주변 동료들과 안전환경팀 직원들의 적절한 응급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이번 행사가 마련되었고, 관련 직원들에게 격려와 시상을 하며 마무리했다.

04. 아산성우하이텍, 산업재해 없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9월 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에서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아산성우하이텍, 현대기아차 아산공장 등 주요 협력사 5개사가 참여하여 "산업재해 없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산업재해감축 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중대재해 위험 요인 개선 예산 및 장비 지원하며, 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및 완성차 협력사 원하청 상생 안전점검 등 기반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05. 임직원 100여 명 사랑의 헌혈 행사

"1초의 따끔함이 고귀한 생명을 살린다."
10월 26일 10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성우 임직원들이 헌혈 행사에 동참하였다. 이날 헌혈 행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성우하이텍 100여 명의 참여로 마무리되었다. 몇몇 직원들은 헌혈증마저 기부를 하였고, 또 몇몇 직원들은 내달 3~7일에 주최하는 제23회 부산마라톤대회 참가비 대신 헌혈 인증으로 갈음하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 54p

06. 양산시 이웃돕기 이불 100채 기탁

11월 11일 양산시 웅상출장소를 방문하여 이불 100채(1,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탁한 물품은 ㈜성우하이텍 양산공장이 위치한 양산시 웅상 4개 동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비용은 전액 '성우공동모금'에서 지원하였다. '성우공동모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만든 ㈜성우하이텍의 고유 기금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임직원들의 소망을 담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07. "2021년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

관련 기사 56p

11월 26일 오전 10시, 쌀쌀한 가을바람이 맴도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부터 매년 가을마다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성우하이텍은 지역 결식 우려 아동,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 노인무료급식소에 김장 김치를 드리고 있다. 이날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성우공동모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명근 회장 제39회 부산산업대상 '특별공로 부문' 수상

11월 26일 11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제39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명근 회장은
'특별공로 부문'을 수상했다.

부산산업대상은 1983년부터 매년 부산 경제와 상공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업 경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거둔 상공인을 부문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그중에서도 '특별공로 부문'은 매년 시상이 아닌 특별공로가 인정되는 해에만 시상하는 부문으로 대외적 관심이 크며 의미가 있다. 이 회장은 특별공로 부문 제정 이래 여섯 번째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THE 39TH BUSAN INDUSTRY GRAND AWARDS CEREMONY

성우금속공업사(성우하이텍의 전신)가 부산 좌천동에서 첫발을 내디딘 1977년. 당시 성우는 주로 주방기구, 농기구,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던 소규모 프레스 제조업체였다. 이후 44년, ㈜성우하이텍은 전 세계 36개 사업장, 1만 7천여 명이 근무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각종 장학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하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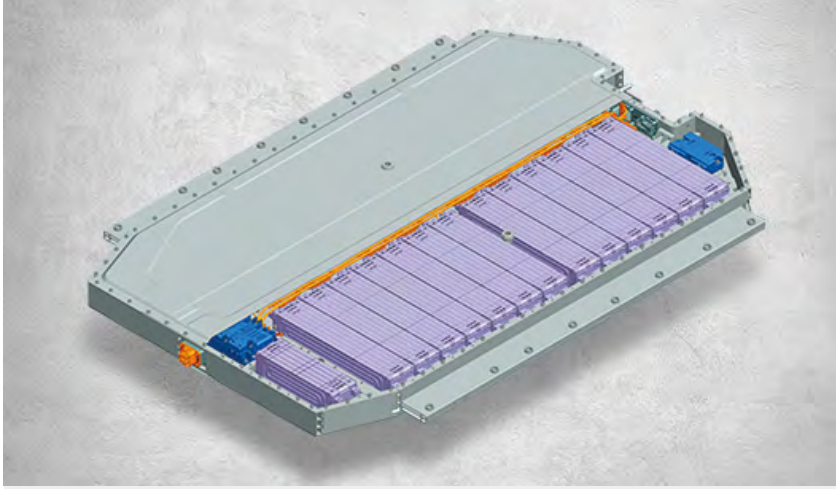
이날 수상은 지역의 작은 제조업체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온 이명근 회장의 노고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차체'라는 거시적인 아이템을 선택하여 본격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발을 들이고, 과감한 해외 진출로 신 시장을 개척하며, 자체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품질향상을 통해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기까지. 이명근 회장은 수많은 순간을 함께 지혜롭게 헤쳐온 성우하이텍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데 ㈜성우하이텍이 일조할 것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건실한 기업으로 유지·발전하여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아울러 부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낮출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성우하이텍과 부산 지역 기업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부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가정 경제를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한편 2021년 제39회 부산산업대상 경영 부문에는 정진근 효성전기 회장, 기술 부문에는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수많은 순간을 함께
지혜롭게 헤쳐온 성우하이텍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데 ㈜성우하이텍이
일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성우하이텍,
미국 전기자동차 공장 설립

㈜성우하이텍이 첨단 산업의 메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친환경차는 물론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한발 앞서가는 곳이다.



배터리 시스템

유수의 자동차 기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

(주)성우하이텍은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흐름과 발맞춰 선진 기술력을 습득,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미국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2017년 6월에 이미 디트로이트(Detroit)에 지점을 설립하여 미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성우하이텍은 미국에 본사를 둔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과 여러 건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하도록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이 새롭게 터를 잡은 미국 공장은 텔포드(Telford) 지역으로서 테네시주(Tennessee)의 워싱턴 카운티(Washington County)에 있는 자치구이다. 이 지역은 GM의 햄트랙 공장, 캐미 공장, 스프링힐 공장과 한나절 거리(12시간)에 있다. 멕시코 몬테레이주에 위치한 ㈜성우하이텍 공장이 하루(약 2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완벽한 제품 공급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우하이텍의 미국 공장은 부지 161,983㎡(49,000평), 건물 34,710㎡(10,500평) 규모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추가로 5,000평의 증축 및 리모델링 작업 후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왕국 미국 공략의 마중물 역할 기대

㈜성우하이텍은 GM본사와 '리릭(Lyriq)'의 차체 및 배터리 케이스 수주 계약으로 북미 진출에 물꼬를 텄다. '리릭(Lyriq)'은 GM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캐딜락 최초 순수 전기차로, ㈜성우하이텍 멕시코에서 2022년부터 8년간 약 80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미국에 새롭게 지어질 ㈜성우하이텍의 공장에서는 밴 타입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모델의 차체를 생산하여 2023년부터 8년간 약 60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건설하는 ㈜성우하이텍 미국 공장은 미국 GM공장에 납품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의 비중 확대에 대비하여, 향후 주 거래처가 될 현대기아차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한 진출이기도 하다.

㈜성우하이텍은 1997년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 건설과 함께 해외로 진출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전 세계 10여 개 국가 22개 사업장에서 성공적인 공장 건설 및 현지화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신공장도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자동차 왕국인 미국 공략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

혁신을 이끌 성우의 새바람, 2022년 공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현장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원들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난다. 서류심사부터 AI 역량검사, PT 면접을 포함하여 1, 2차 면접까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입사한 성우하이텍의 새 가족.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육 또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어 신입사원들이 서로 대면한 것은 오리엔테이션이 처음이다.

신입사원 채용 일정

- **21.10.06. ~ 10.19.** 서류접수
- **10.29.** 서류합격자 발표
- **10.30. ~ 11.06.** AI 역량검사·PT 면접 (비대면 온라인)
- **11.10. ~ 11.12.** 1차 면접 (비대면 온라인)
- **11.24.** 1차 합격자 발표
- **12.06. ~ 12.08.** 2차 임원 면접(대면)
- **12.15.** 2차 합격자 발표
- **12.16. ~ 12.17.** 채용검진(건강검진)
- **12.22.** 최종 합격자 발표

성우하이텍의 혁신적인 미래를 창조해나갈
신입사원들의 열정에 작은 불씨가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변화를 이끄는 인재가 되길 꿈꾸며

성우의 새 가족을 축하하기 위하여 신입사원들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먼저 마이크를 든 경영기획총괄 조성현 사장은 젊음의 열정적인 에너지로 성우에 변화를 일으킬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면서,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개발/생산총괄 손봉근 사장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대감을 전했다.

성우하이텍의 식구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전한 R&D총괄 이문용 사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입사 후 35년간의 경험으로 얻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를 언급하며 신입사원들이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갈 혁신적인 인재가 되어주기를 요청했다.

"'셀프 리더십'으로 마음 근육을 가다듬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직하게 시도하는 어리석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팀워크를 잘 살리는 조직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바탕 위에 혁신적인 미래를 창조할 성우인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인사정보사업본부 도종복 부사장의 '성우의 역사와 기업문화'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성우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성우하이텍이 창립기, 도약기, 발전기를 지나 노사가 화합하여 똘똘 뭉쳐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성장한 과정을 듣고 신입사원들은 '회사가 자랑스럽다'며 입을 모았다.

세계의 수송 체계가 '그린 모빌리티'로 바뀌어 가는 현재, 성우하이텍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센서 등 성우하이텍의 혁신적인 미래를 창조해나갈 신입사원들의 열정에 작은 불씨가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다가올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성우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

"신입사원" 내려온다~ 뉴페이스 성우인들이 말하는 나!

Q.

MBTI

❶ 나의 부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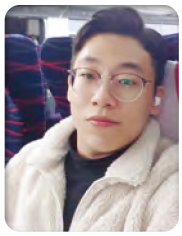
❷ 동료들에게 한마디

※ MBTI는? 4가지 선호지표로 성격, 성향 유형을 나누는 성격 유형 선호 지표.

강석민(글로벌신차팀) / ISFJ

❶ "강기사" 성우하이텍의 목적지로 빠르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❷ 귀염둥이 품질 직무 막내 강석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두현(생산기술3팀) / ESFJ

❶ "액티브" 스포츠, 여행 등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❷ 신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곽혜란(글로벌신차팀) / ISTP

❶ "곽 배영"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 중 배영을 잘합니다.

❷ 많이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배워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권영원(생산기술1팀) / IS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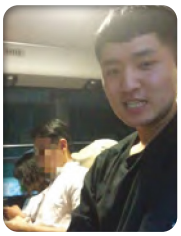
❶ "슛돌이"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즐겨온 축구를 동료 사원분들과 즐기고 싶습니다!!

❷ 성실한 신입의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오(품질보증팀) / INFP

❶ "김테크" 스마트한 소비로 재테크를 통해 종잣돈 마련에 힘쓰고 싶습니다.

❷ 항상 먼저 다가가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성우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형(안전환경팀) / ENFJ

❶ "헬린이" 헬스계에 입문한 지 한 달 된 새내기 헬린이입니다.

❷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민기(총괄PM팀) / ESFJ

❶ "황정민" 잔 들고 드루와, 일루 드루와~

❷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민성(공법기획팀) / ESFP-T

❶ "견주" 저희 강아지 사진 보러 오세요!(@_owol_may)

❷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상규(생산기술1팀) / ENTP

❶ "귤" 이름이 '규'로 끝나고 귤을 좋아해서 :)

❷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현(EV선행개발팀) / INTJ

❶ "스포츠맨" 수영, 클라이밍을 잘하는 스포츠맨!
❷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글로벌 부품 시장을 이끌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환(생산기술2팀) / ISTP

❶ "헬린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지만 배울 게 많아요!
❷ 훌륭한 분들과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김태오(글로벌PM팀) / ESFJ

❶ "운동 Mania"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기!
❷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운동하실 분 환영!

김태원(생산기술2팀) / INFP

❶ "스포츠맨" 축구,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운동을 좋아합니다.
❷ 신뢰받는 성우인이 되겠습니다!

김태형(원가1팀) / ESTJ

❶ "상담가" 주변인들의 고민과 걱정을 잘 들어주고 해결책을 말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❷ 50을 이끌어 주시면 100을 따라가는 신입사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한빈(보전2팀) / ENFP

❶ "김태공" 전문적인 낚시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나이!
❷ 동기, 선배님들 2022 호랑이해입니다. 호랑이 기운 받고 다같이 으쌰으쌰 해봅시다!♥

김현규(생산기술2팀) / ESTJ-A

❶ "일탈 사망꾼" 일탈을 꿈꾸지만 주어진 현실과 적극적으로 타협합니다.
❷ 새로운 공간에서 이 한 몸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현우(생산기술1팀) / ISFP

❶ "헬린이"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헬스'+'어린이'입니다.
❷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형락(원가1팀) / EST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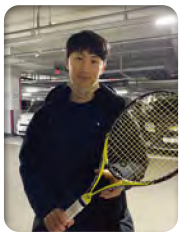
❶ "신발 러버" 트렌드에 맞는 신발 구매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리셀로 용돈도 벌고!
❷ 같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같이 하게 되었으니 다들 최선을 다해 보아요~

노상호(금형설계팀) / ESFJ

❶ "웰시코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입니다.
❷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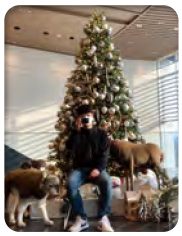
박성필(통합구매팀) / ENTJ

❶ "건강한 GO GETTER" 취미생활을 통한 정신·육체적 건강 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적극적 활동
❷ 성우인 선배님들, 상호보완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박성현(생산기술1팀) / ESFP

❶ "박국밥" 국밥에 아주 진심입니다.
❷ 성우하이텍의 일원이 되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세영(자재지원1팀) / IN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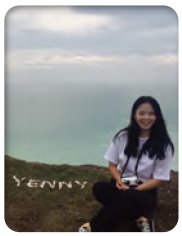
❶ "운동 & 음식 마니아"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그 에너지로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❷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합시다.

박수현(생산기술1팀) / ESFJ

❶ "프로 협동러" 사교적이라 어떤 사람이든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며 동료들과 팀으로 일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❷ 같이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박예은(경영기획팀) / ESFJ

❶ "트래블 옌" 여행을 좋아합니다.
❷ 2022년 모두 행복한 한 해 보내십시오!



박우렬(글로벌개발팀) / ENFJ

❶ "목수" 제가 그리는 그림을 바탕으로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듭니다.
❷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잘 융화되어 팀과 회사에 도움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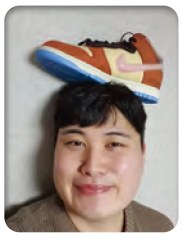
박인후(글로벌PM팀) / ESFJ

❶ "박인도(India Park)" 인도에서 적응 잘하고 이름도 잘 어울린다며 주변에서 붙여줬어요.
❷ 훌륭한 회사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제민(신차품질1팀) / ENFJ

❶ "미식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여 미식가입니다.
❷ 열심히 하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부(선행기술팀) / INFP



❶ "나이키 신발 마니아!" 나이키 신발을 좋아해 수집하고 커스텀하고 있습니다!
❷ 많이 부족하더라도 결국엔 인정받는 동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아산물류관리팀) / ISFJ

❶ "JYP" 이니셜이 같고, 음악도 좋아합니다!
❷ 예쁨 받는 후배 성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혁(생산기술1팀) / ISFJ

❶ "성실맨"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❷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혜수(경량설계팀) / ENFP

❶ "박람회 프로참석러" 매년 다양한 박람회에 참석하여 체험과 쇼핑을 즐겨요!
❷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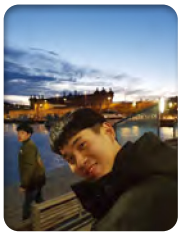
박희재(아산자재지원팀) / ENFP-T

❶ "포켓몬 잠만보" 먹고 자는 행복으로 체중이 증가했지만, 활동 시 모아둔 힘을 쏟아붓습니다.
❷ 선배님들의 업무 지식과 지혜를 흡수하고 제 것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영진(경량설계팀) / ENFJ

❶ "운동하는 직장인"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❷ 빠르게 적응하고 많이 배워서 즐겁게 회사생활 하겠습니다!!

방정욱(신차품질2팀) / ESFJ-T



❶ "헬스 중독자" 매일같이 헬스를 통해 육체와 정신을 단련합니다.
❷ 팀워크를 통해 성우를 챔피언으로 만들겠습니다.

봉선종(생산관리팀) / ISFJ

❶ "트래블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❷ 힘든 시기에 동료가 되어서 기쁩니다! 부족하지만 힘든 일, 좋은 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지연(공법혁신팀) / ESTP

❶ "긍정 루피" 뽀로로의 루피처럼 항상 웃으며 긍정바이러스를 성우에 퍼뜨리겠습니다!^-^
❷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소중한 순간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화이팅!

손동수(아산자재지원팀) / ENFP-A

❶ "뭐 하는 놈?!"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 취미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❷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손세필(생산기술1팀) / EST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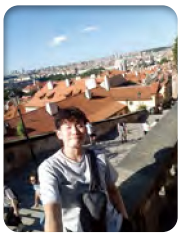
❶ "번역가" 좋아하는 축구팀 관련 이적시장 및 정보들을 번역하는 게 취미입니다.
❷ 신입의 자세로 빠르게 적응하여 녹아들겠습니다.

손창민(인사노무팀) / ENTP

❶ "얼음속 보석"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❷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심규하(글로벌PM팀) / ESTJ

❶ "헬린이" 헬스+어린이, 웨이트 트레이닝 초보자입니다.
❷ 보다 친근하고 항상 웃음을 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안동녁(아산안전환경팀) / IS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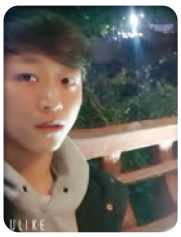
❶ "니기형"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종종 나오는 돌 같은 모습을 가진 캐릭터
❷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안영철(통합구매팀) / ISFP

❶ "볼링맨" 주변 지인들과 볼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기 때문입니다!
❷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예찬(생산기술2팀) / ESFJ-T

❶ "집돌이" 평소 캐릭터와 달리 의외로 방구석에서 가만히 있기 좋아하는 집돌이입니다.
❷ 처음이라 많이 서툴 수 있지만 빠르게 적응해 가겠습니다!



엄영훈(품질보증팀) / ESFP

❶ "양산 라이더" 특기가 발 빠른 역습인 만큼, 꿀벅지로 하는 건 다 자신 있습니다.
❷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성실한 막내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유택(생산기술2팀) / ESFP

❶ "정열맨" 매사에 노력하자!
❷ 신입의 패기로 성장하겠습니다!

오혜리(인사노무팀) / INFJ

❶ "하리언니" 하리와 가족이 된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부캐입니다.
❷ 부족함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정재(글로벌개발팀) / IN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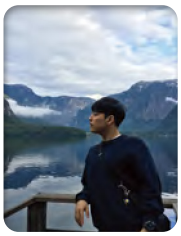
❶ "람"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매너있고 헌신적이었던 선수!
❷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도건(생산기술2팀) / ISFP-T

❶ "도르(도건+토르)" 군대에서 진지 구축 시, 해머질도 잘하고 힘쓰는 일을 잘했습니다.
❷ 성우하이텍을 만든 선배님들처럼 저도 성우인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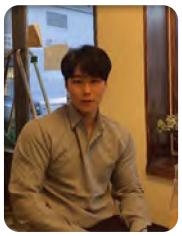
이선빈(선행기술팀) / ESFJ

❶ "여행에 진심인 남자"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동적인 것을 즐겨 무척 좋아합니다.
❷ 잘 부탁드리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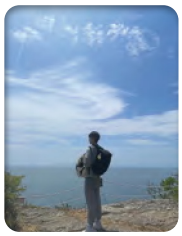
이승욱(글로벌신차팀) / ENTJ

❶ "열정맨" 주어진 일과 약속한 일에 항상 열정이 넘칩니다.
❷ "신입다운 신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마주칠 때마다 크게 인사 드리는 밝은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진(아산생산관리팀) / ISTP

❶ "등산가이씨" 평소 등산을 좋아하여 쉬는 시간에 종종 산에 가곤 합니다.
❷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빠르게 적응해서 동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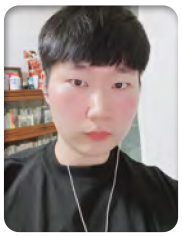


이재봉(보전1팀) / ESFJ

❶ "잘 마른 스펀지" 기타, 보컬, 운동… 맡은 직무까지 배우고 싶은 게 많고 잘 흡수하고 싶습니다!
❷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동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재(생산기술1팀) / ISTJ

❶ "북극곰" 피부가 하얗고 덩치가 커서 자주 들은 말입니다.
❷ 첫 직장인데 같이 파이팅해서 오래 다녀봅시다!



이정철(EV시작개발팀) / ESF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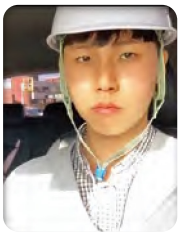
❶ "정리 전문가" 업무에 있어 철두철미한 편이고, 계획 후 실행을 하는 편입니다.
❷ 코시국에 함께 입사하여 동료가 된 만큼 친하게 지냅시다.

이종원(아산생산관리팀) / ESFJ

❶ "아빠" 이제 4개월 정도 된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❷ 열심히 해서 선후배님들 사이에서 잘 융화되는 성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안전환경팀) / ENFJ

❶ "안전맨"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을 준수합니다.
❷ 쉽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안전에 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창현(물류관리팀) / INFJ

❶ "집돌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놀땐 누구보다 열심히 노는 집돌이이기도 합니다.
❷ 새내기로서 먼저 다가가며, 성우를 빛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우인이 되겠습니다.

이창현(융합설계팀) / ISTP

❶ "낚시왕" 바다낚시 가면 뭐라도 잡아왔으면, 광조사 탈출 희망
❷ 먼 수원에 떨어져 지내는 만큼,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즐겁게 성장했으면 합니다.

이하정(공법혁신팀) / ESTP

❶ "피클 먹는 천우희" 피클을 좋아하고, 영화 '써니'의 천우희와 닮았다며 지어주었습니다!
❷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파이팅!

이현수(신차품질2팀) / ESFJ

❶ "헬린이" 헬스 시작한 지 3개월차 되는 헬린이입니다.
❷ 눈치있고 빠릿빠릿한 팀원이 되어 팀에 큰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현승(원가2팀) / INFP

❶ "해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해 끈질기게 늘어집니다 ㅎㅎ
❷ 함께 즐거운 회사생활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형진(경량설계팀) / ESTJ

❶ "버팔로" 운동할 때 이미지가 닮았다고 하네요.
❷ 자랑스러운 성우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주형(선행기술팀) / INTP

❶ "엘리베이터 가이"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해서 엘리베이터를 애용합니다.
❷ 다들 열심히 회사생활 해서 성우하이텍의 핵심 인력이 됩시다. 화이팅!

임형순(IT개발팀) / ISTJ

❶ "순사크" 평소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인데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❷ 경력직으로 업무적으로나 그 외적으로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성우(신차품질2팀) / ENFJ

❶ "아싸 같은 인싸" 활동하는 것을 잘 안 하지만 할 때는 또 열심히 참여합니다.
❷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명철(보전1팀) / IST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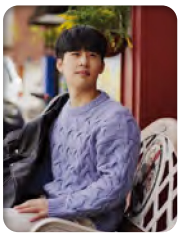
❶ "전기사" 운전과 자동차 여행을 좋아합니다.
❷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전명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훈(코일센터팀) / ESTJ

❶ "수영인" 구기 종목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좋아합니다.
❷ 우리 같이 늘 발전하는 성우인이 되어봅시다. 화이팅!

전영준(생산기술2팀) / ISTP

❶ "투자자" 부동산, 주식 등 공부를 하는 초심자 투자자입니다.
❷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는 조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전종민(경량설계팀) / ESFJ

❶ "열정남" 친구에게 늘 들었던 말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❷ 먼저 인사하고 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다운(생산기술2팀) / ENF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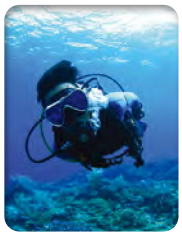
❶ "삼천포 기성용" 평소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로 미드필더를 선호합니다.
❷ 이제는 신입사원으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결승점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정재민(아산생산관리팀) / ISFJ

❶ "고민 상담사" 주변인들의 다양한 고민을 잘 들어주고 해결하는 사람
❷ 만나서 반갑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용(경영기획팀) / ESTJ-A

❶ "김해 송사리" 수영을 좋아하고 다이빙을 즐깁니다.
❷ 만나뵙게 되어 설레고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고 '잘' 하겠습니다!



정현태(아산안전환경팀) / ISFJ-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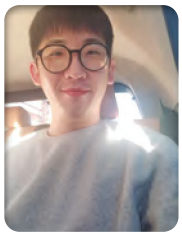
❶ "여행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즐깁니다.
❷ 함께 성우하이텍의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호진(IT개발팀) / ISTJ

❶ "호징어" 못생겨서?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❷ 새해의 첫 시작을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굉장히 설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탁(신차품질1팀) / ENFJ

❶ "서포터" 누구와 함께 일해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의 전문가입니다.
❷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성우인 모두 파이팅입니다.



조승근(IT개발팀) / ISFJ

❶ "예비파블" 예비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해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❷ Great Company 성우하이텍 우리 모두 화이팅!

조한희(보전1팀) / ENTP

❶ "탁구왕김당구" 탁구를 잘 칩니다. 하지만 당구를 잘 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❷ 신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빠르게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최동호(신차품질2팀) / ISTJ

❶ "울산 아재" 울산에 살고, 아재개그를 많이 해서 지었습니다.
❷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지만, 신입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우(신차품질1팀) / EST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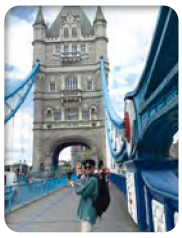
❶ "LP수집가" 턴테이블이나 LP들을 수집하고, 음악을 즐기며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❷ 신입 사원으로써 패기 있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최준남(안전환경팀) / ENTP

❶ "고민상담사"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고민이나 걱정 거리들을 공감하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❷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취미 활동도 같이 하면서 성우만의 팀워크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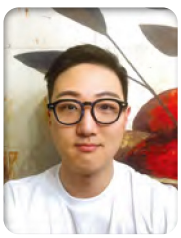
최진영(생산기술3팀) / INFJ

❶ "동네형"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상담도 많이 합니다. 편한 느낌이 들어 어색하지 않고 좋다고 합니다.
❷ 신입사원 최진영, 잘 부탁드립니다!



홍지범(생산기술1팀) / ESFJ

❶ "A컷사진가" 제 사진은 못 찍지만 남들 인생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❷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상철(보전2팀) / ESTJ

❶ "자유로운 영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습니다.
❷ 선배님들이 쌓아온 성우하이텍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제문(생산관리팀) / ENFJ - A

❶ "상담가" 친한 친구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항상 경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❷ 출근시간 단축 위해 파마를 했습니다! 선배님들께 예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업 리더를 위한 진중한 고민의 시간

2021 승진자교육

성우하이텍은 “협업 리더를 위한 Co-Elevation”이라는 주제로
25차례에 걸쳐 2일간 재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4/15~11/12, 매주 목, 금),
승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10/13, 10/20)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협업’, ‘소통’, ‘변화’, ‘혁신’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협업’
‘소통’

‘변화’
‘혁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의 비밀

"아파트 40층 높이의 나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나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하이페리온(Hyperion)'이라 이름 붙은 나무로서 높이가 115.6m(379.3피트)에 이르고 수령이 60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도 조금씩 더 자라고 있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40층 높이 나무의 뿌리 깊이는 겨우 3m 내외입니다. 시속 5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에도 수백 년을 쓰러지지 않고 지탱한 뿌리가 겨우 3m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쎄(아니 흔들리고)….'(<용비어천가> 제2장 中)를 자주 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40층 높이 나무가 겨우 3m 깊이의 뿌리로….

주제 협업 리더를 위한 Co-Elevation

그 비밀은 뭘까요? 비밀은 뿌리들 간의 협력에 있습니다. 하이페리온의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어 다른 나무(레드우드)의 뿌리와 얽혀 있습니다. 그 옆의 나무는 또 다른 나무의 뿌리와 얽혀 있고, 그 옆의 나무는 또 다른 나무의 뿌리와… 그러고 보니 하이페리온 옆의 나무들도 모두 100m 내외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들의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영양분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어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를 '함께 사는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으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레드우드의 비결은 이렇듯 '협업'에 있습니다.

협업

소통

대한민국 스포츠 일인자들이 조기 축구팀을 결성하여 성장 스토리를 써가는 방송 <뭉쳐야 찬다 2>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포츠 일인자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운동능력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선수들에 더하여 최근 공개 오디션을 통하여 축구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까지 합세하니 가히 천하무적이라 할 것 같습니다만, 일반인들과 대결에서도 힘겨워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 축구팀이 헤맬 때마다 안정환 감독이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대화 좀 하세요."
좀 이상합니다. 방송을 보면 경기 전에 쾌활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선수들이 그려집니다. 연령과 종목을 넘어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때로는 짓궂은 장난도 칩니다. 그런데도 경기에서는 대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시즌1부터 줄기차게 듣습니다.
문득 2000년대 초반 히딩크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취임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가장 고참 선수와 가장 신참 선수를 섞어서 식사하게 하고, 존칭 없이 이름을 부르게 했었습니다. 제일 어린 친구가 베테랑에게 "XX야~"라고 불렀다고 온갖 신문과 방송에서 소개가 되었고, 그 선수는 'X가지가 있네, 없네' 하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히딩크 감독은 사적인 소통이 경기에서도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겠죠. 이같이 소통을 위한 노력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쓰는데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사적인 소통이 많이 나아졌지만, 공적인 소통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의 업무도 매한가지이겠죠. 사적인 소통이 원활하다고 지나치지 말고 공적인(혹은 업무적인) 소통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듯합니다. 평소 친하니까 업무적으로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이제 공적인 소통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 속 사람 ↗

변화

서양미술사를 통해 본 변화의 길

서양 미술은 뉴트로(New-tro)의 역사입니다. 뉴트로는 'New'와 'Retro'의 합성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발전시킨 재창조입니다.

< 서양 미술의 시초, '이집트 미술'과 '그리스/로마 미술'>
이집트 ▶ 그리스/로마 ▶ 중세 ▶ 르네상스 ▶ 매너리즘 ▶ 바로크 ▶ *** ▶ 인상주의 ▶ *** ▶ 현대미술 ▶ ***

서양 미술은 '이집트 미술'과 '그리스/로마 미술'의 반복과 진화에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 속 사람은 특이합니다.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 몸도 정면, 팔·다리는 다시 측면을 그렸습니다. 저 그림과 같은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들은 물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렸습니다. 사람의 얼굴, 팔다리는 옆에서 봤을 때, 몸통은 정면에서 봤을 때가 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보는 거죠. 한 자리에서 본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규칙에 맞춰 정형화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규칙에만 맞추면 누구나 그릴 수 있으니 화가가 누구인지 어떤 개성을 가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집트 벽화를 볼까요? 마치 예닐곱 살 때 그린 그림 같지 않은가요?

'그리스/로마 미술'은 이와 정확히 반대입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승리의 날개)> 조각상을 보세요. 거친 바다를 건너온 듯한 당당한 자세, 잔뜩 기운이 서려 있는 날개, 젖은 옷자락 뒤에 드러나는 강인한 근육이 보는 이의 가슴을 웅장하게 합니다. 하늘거리는 옷자락이 돌이 맞나 의심스러워 몇 번이나 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날개를 제외하면 사람의 몸을 보이는 그대로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와 달리 보이는 대로 조각하니 미술가의 개성이 살아납니다. 미술가마다 보는 각도도 다르고, 강조하고 싶은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미술에서 보이던 규칙성, 정형성에서 벗어나니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1천 년은 다시 이집트 미술이 부활한 시기입니다. 중세 미술은 교회와 성경의 말씀과 일화를 전파하는 보조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미술은 이야기 전달만 하면 되니 예술적 풍부함과 미술가의 개성은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교회에서 그림만 봐도 성경 속 이야기가 떠올라야 하므로 미술은 전형적이고 규칙적으로

↙ <사모트라케의 니케(승리의 날개)> 조각상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처럼 미술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규칙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세를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그리스/로마 미술'의 부활(Renaissance, 프랑스어)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는 문화의 부흥기라고 불립니다. 이제 그리스/로마 시대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미술가들의 이름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언젠가 한 번은 들어 본 미술가들이죠? 개성의 존중이 문화의 부흥을 이룬다는 것을 미술사(史)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등 여러 시기가 흘러갑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시죠. 밤의 몽환적 분위기를 비연속적인 붓 터치로 역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찬찬히 생각해봅시다. 저런 하늘이 세상에 있나요? 파란색과 검은색 선으로 뒤덮인 산은요? 세상에 검은색 불이라니! 저 그림과 같은 모습은 단언컨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의 순간적인 인상을 그림에 담은 것입니다. 이렇게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포착하여 그림을 그렸던 시기가 '인상주의'입니다. 왜 인상주의가 생겨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진술의 발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잘 그린 그림도 사진보다 뛰어나게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색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미술가들.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나요?
(요즘 유X브를 통해서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그림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은 현대 미술 장르 중 하나인 '하이퍼 리얼리즘(Hyperrealism)'이라고 합니다. 정밀한 묘사를 통하여 보는 이들에게 '실재와 가상'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하이퍼 리얼리즘'도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여기 색다르게 '이집트 미술'의 부활과 재창조를 이루어낸 미술가도 있습니다. <게르니카>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7년 4월 26일, 독일 나치가 게르니카 지역을 폭격한 사건을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인, 청년, 황소, 말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리고 있어 마치 이집트 벽화와 같이 누구나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집트 벽화와 달리 그림에서 폭력, 참상, 슬픔, 분노, 좌절이 느껴집니다. 수천 년 전의 개성이 없고 전형적인 이집트 미술의 특성을 가지고 새롭고 창의적이며 자유분방한 현대미술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이름 없던 이집트 미술가와 달리 이 그림의 작가는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그 밖의 서양미술사의 다른 재미난 이야기들은 각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우리는 서양미술사를 통하여 변화, 복고, 재조합,
새로운 길의 모색, 재창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술사뿐만 아니라 시대, 경영 환경,
조직 문화의 변화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

혁신

↙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상장사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고민하다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2021년 11월 24일, 한국거래소[1] 시장감시위원회 투자자보호부 임헌범 부장을 초청하여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내용 전반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임직원 400여 명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투자자보호부 임현범 부장이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장사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청렴문화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강의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개념과 규제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상장사 임직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불공정거래 행위의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여 임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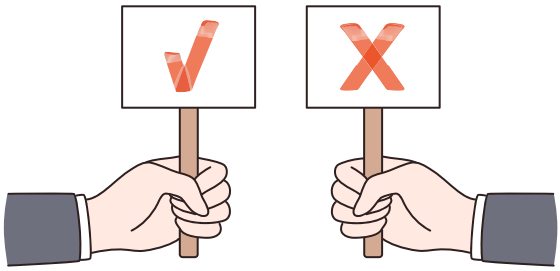
이번 교육을 통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요즘 사회에서 상장사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청렴문화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2]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형사 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형사처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재빠른 적발과 처벌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성우하이텍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1. **한국거래소** : 증권 및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 설립된 기관

2.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 사전적 의미는 '준법(遵法)'이나 기업에서는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준법의식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예 방



임직원들이 알아야 할 불공정거래 규제 주요 내용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란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을 사고파는 데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회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규제 대상은 1) 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2) 회사의 인가·허가·지도·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자,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계약을 교섭한 자, 4) 주요주주 및 내부자로 인정하는 자의 대리인, 5) 직접 정보를 받은 자(회사 내부자 또는 내부자로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 받은 자) 등 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처벌은 1) 형사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 5배 이하의 벌금형[자본시장법 제443조], 2)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5조]

이익/회피 손실액	징 역	벌 금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이익 /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 단,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인 경우에는 5억 원의 상한 벌금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징역 시 병과 가능)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징역 시 병과 가능)	

2. 단기매매차익 거래

단기매매차익 거래란 회사내부자가 그 직무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 등을 6월 이내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사에 동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반환대상은 임원,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이 제도는 회사내부자가 그 직무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민사상 책임만 있고, 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3.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6조]

글로벌 성우인의 내실 다지기
성우하이텍 사내 영어 출강 교육

"What do you do?", "Which job would you never want to do? Why?"
12월 24일 오후, 15명 내외의 인원이 둘러앉아 원어민 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우인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내 출강 영어 교육의 첫 주 수업 풍경이다.

글로벌 성우하이텍, 글로벌 성우인

1997년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 건설을 계기로 해외 진출을 시작한 성우하이텍은 현재 전 세계 10여 개 국가 2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그에 따라 성우인들의 활동 무대는 자연히 전 세계로 넓어졌으며, 글로벌 고객사와의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한 영어 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성우하이텍은 국내 사무직 사원부터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화 위주의 사내 영어 교육을 마련하였다.

각 차수별 12주 과정으로 3차수에 걸쳐 진행될 영어 교육은 비즈니스에 적합한 회화 교육으로, 업무단위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어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Office English-Email-Telephone-Meeting-Presentation-Negotiation' 등 성우인들의 비즈니스 스킬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강사와 자유롭게 프리토킹하고

성우하이텍 영어 교육 계획

2021.12.21.~ 2022.3.25.	3.29.~ 6.24.	6.28.~ 9.30.	10.1.~
영어 출강 교육 1차수 실시	영어 출강 교육 2차수 실시	영어 출강 교육 3차수 실시	전화, 온라인(통신) 교육 실시

Global Sungwoo Hitech

◀ 성우인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내 출강 영어 교육의 첫 주 수업 풍경. 15명 내외의 인원이 둘러앉아 원어민 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술 개발과 뛰어난 제품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성우하이텍.
글로벌 성우하이텍의 명성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당당히 인정받길 기대한다.

패턴을 활용해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전화부터 이메일, 미팅, 프리젠테이션, 협상까지 업무에 필요한 영어 회화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30일 교육 명단 취합을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1차수 인원에 대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국내 강사가 진행하는 클래스와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클래스로 나누었다. 또한 한 클래스의 인원은 15명 내외로 제한하여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 개발과 뛰어난 제품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성우하이텍. 글로벌 성우하이텍의 명성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당당히 인정받길 기대한다.

부산마라톤대회를 함께한 세 남자의 유쾌한 주말

이재현 대리
공경록 사원(이상 인사노무팀)
이현준 사원(총무팀)

11월 3~7일 열린 제23회 부산마라톤대회는 코로나 시국을 반영한 의미 있는 기획으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참가신청 기간에 헌혈하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참가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 헌혈하지 않은 참가자가 낸 참가비는 전액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혈액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 기획된 이 행사에 성우가족도 함께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반영한 의미 있는 기획

날씨도 화창한 일요일 오전. 휴일 아침의 여유를 물리고 멀리까지 나온 것이 아깝지 않게, 도착한 공원에는 가을이 한창이다. 온천천 강변을 따라 조성된 이곳은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코스 중 하나로, 오늘 도전한 5km 코스에 적격이다. 공원을 한번 휘둘러본 이재현 대리와 공경록 사원, 이현준 사원은 나란히 준비운동을 시작했다. 부산마라톤대회 티셔츠를

(좌측부터)
공경록 사원,
이재현 대리(이상 인사노무팀),
이현준 사원(총무팀)

똑같이 맞춰 입은 세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는다. 인사정보사업본부 소속으로 직장 동료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촌이기도 한 세 사람. 마음이 통하는 또래의 동료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하다. 그래서였을까. 대회 참가를 얘기했을 때도 뜻이 맞았다.

"헌혈 부족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던 차에, 우리 회사가 후원하고 대한적십자가 함께하는 헌혈 나눔 부산마라톤 대회 소식을 들었어요.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작은 힘을 보탤 기회라 생각해 셋이 함께 도전해보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성인 남자들이 그렇듯 군 복무 당시 헌혈을 주기적으로 했지만, 전역 후에는 좀처럼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웠다. 아무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였다. 헌혈을 통해 작은 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 공경록 사원은 대회 참가를 위해 헌혈하던 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많은 직원이 헌혈하려고 대기 중이더라고요. 성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지요. 당연히 나도 통과하겠지 생각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저만 헌혈을 못했어요."

공경록 사원은 헌혈증은 받지 못했지만 다른 두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가비를 내고 대회에 참여했다. 막상 나와서 함께 달리다 보니 마음까지도 상쾌해지는 기분이다.

헌 혈 나 눔 부 산 마 라 톤 대 회

언택트 마라톤,
여유롭게 한 발 한 발

성우하이텍은 매년 세 개 마라톤을 후원하고 있는데, 입사 연차가 오래지 않은 세 사람 모두 마라톤 참가는 처음이다. 예년 같았으면 임직원이 어울려 팀별로 달리거나 서로 경쟁해보기도 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나,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마라톤 대회 또한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 이번 대회는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한 후 참가비를 입금하거나 헌혈증을 제시하여 택배를 수령한 다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러닝어플을 실행 후 달리고 홈페이지에 인증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간도, 장소도, 도전 코스도 본인이 정하기 나름. 세 사람은 무리가 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5km 정도의 건강 달리기를 선택했다.

준비운동을 끝낸 후 발을 맞추며 달리는 세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넘친다. 기록보다는 셋이 함께 달리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모처럼의 여유를 즐겨보자고 했다.

"일반 마라톤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때 자유로운 코스로 뛸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마라톤 코스로 정해진 곳을 달리는 게 아니다 보니 심리적으로 여유 있기도 했고, 주변 풍경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임직원 및 지역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땀 흘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발맞추어갈 동료에게

세 사람은 5km를 달린 후 가볍게 몸을 풀며 여유를 즐겼다. 인증 메달을 깨물며 인증샷을 찍고, 철봉에 매달려 힘자랑을 하는가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쳐보기도 하는 동안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향한 곳은 근처 맛집. 나름의 대회 뒤풀이를 겸한 주말 나들이의 마침표이다. 세 사람에게 이번 마라톤은 어떤 의미일까.

"(이재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생명·나눔·봉사 및 베품의 러닝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 아닌 직장 동료와 함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이번 마라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라톤은 본인과의 경쟁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만약 혼자 달렸다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간에 오버페이스를 막아주기도 하고, 이끌어주면서 힘든 마라톤 코스를 재미있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마라톤을 통해서 팀워크 혹은 전우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회사 업무에서도 혼자이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회사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동료 관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준) 취업 전에 혼자 러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 조금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달리니 힘도 나고 훨씬 즐겁기도 합니다.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동료애일까요?"

"(공경록)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따로 모이기 힘들었는데, 업무 외적으로 좋은 추억을 남겨 오랜 기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바쁜 업무 및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땀 흘리며 리프레시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세 사람에게 이번 마라톤은 앞으로도 함께 발맞추어 갈 동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했다.

2021 부산마라톤대회 운영방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홈페이지 내 참가신청	접수기간 중 참가비 입금 (기부) OR 헌혈 하기(헌혈인증)	택배 수령	레이스데이 (러닝어플 실행 후 레이스)	홈페이지 내 인증게시판에 인증하기	완주기념품 수령/경품당첨 확인

도전의 DNA를 깨워준

언택트 트레킹 챌린지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서며 각종 행사와 모임 등 활동이 제한된 지난 한 해. 성우하이텍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활력을 잃은 임직원들을 위한 이벤트 '2021 언택트 트레킹 챌린지'를 마련하였다. 앱으로 수행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미션을 부여해 수행 선착순으로 순위를 정한 해당 챌린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우하이텍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놀랄 만한 기록으로 챌린지 1위를 차지한 공정QC 김성규 조장을 만났다.

김성규 조장(공정QC)의 챌린지 수행 일지

6월 1일

양산 달음산 등반

만능 스포츠맨, 즐거운 도전을 만나다

김성규 조장은 자칭 타칭 만능 스포츠맨으로 통한다. 등산, 마라톤, 배드민턴 등 어떤 운동이든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좋아한다. 성우하이텍 입사 후 'KNN 환경마라톤'에 참가하며 시작한 마라톤은 풀코스를 몇 번이나 완주했고, 배드민턴은 아마추어 대회에 나갈 정도로 실력자다. 그런 그가 코로나 사태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면서 운동에 대한 갈증만 커지고 있었으니, 언택트 트레킹 챌린지는 김성규 조장에게 맞춤형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처음부터 1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거든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이라고 자부하는 만큼 자신도 있었죠. 성공하고 보니 아주 뿌듯합니다."

자신만만한 김성규 조장의 미소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닌 듯, 직접 들은 챌린지 일정은 입이 벌어질 정도. 그도 그럴 것이 챌린지 시작 단 닷새 만에 7개 코스를 완료했다. 그나마 그중 하루는 날씨 탓에 건너뛰었으니 실제로는 나흘 만에 완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가능한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부분. 김성규 조장의 웃는 얼굴에 설명이 뒤따른다.

"챌린지 시작 시점에 야간조로 일했던 것이 주효했죠. 새벽 4시에 일을 마치고 곧장 챌린지 장소로 이동하는데, 새벽이다 보니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하루에 두 코스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도전을 끝내고 쉬었으니 일에 영향도 주지 않았고요."

6월 2일

부산 다대동 몰운대, 부산 영도 흰여울마을

6월 3일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용호동 이기대

6월 4일

체력 고갈과 날씨 영향으로 도전 포기

6월 5일

금정산 고당봉 등반 완료

2021 언택트 트레킹 챌린지 결과
(2021.6.1.- 8.31.)

부산	**금상** 김성규 조장(공정QC) **은상** 허민승 조장(물류1반) 정상현 기장(물류1반) 장경민 사원(개발1팀) **동상** 5명
아산	**금상** 윤준호 조장(자재지원반) **은상** 박덕하 기장(조립1반) 김진규 기장(프레스반) 김현준 기장(자재지원반) **동상** 5명
건천	**금상** 윤준영 기사(보전반) **은상** 정연환 사원(보전반) 김완섭 대리(핫스탬핑 관리팀) 성희찬 대리(핫스탬핑 관리팀) **동상** 1명

함께라서 더 의미 있었던 시간

새벽의 산은 고요하다. 온통 고요함 속에서 어스름이 여명에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 그 시간을 함께한 두 사람이 있었다. 물류1반의 허민승 조장과 정상현 기장이다. 평소 친분이 있던 허민승 조장은 챌린지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기로 했고, 정상현 기장은 허민승 조장의 권유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김성규 조장이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도록 조절해준 동반자로서 도전 성공에 큰 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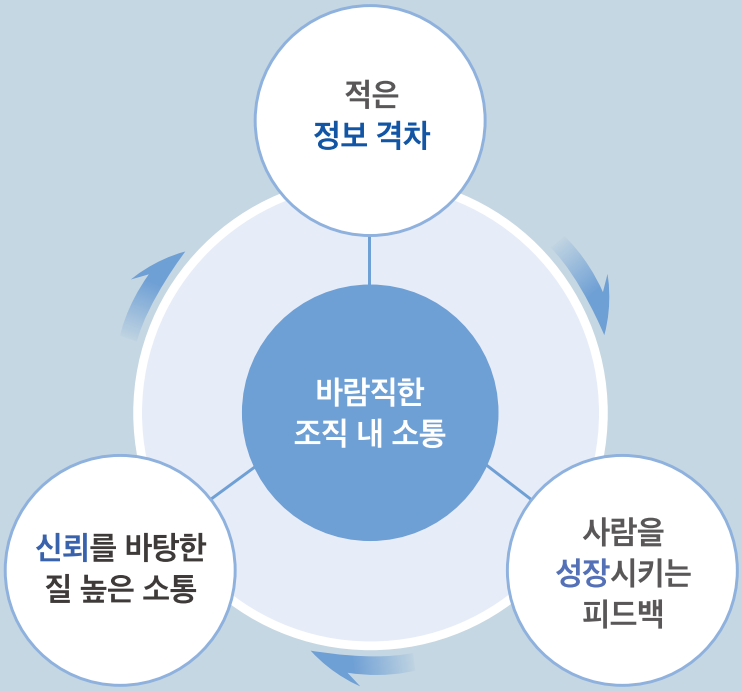
"같은 목표로 도전을 하면서 두 친구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 도전이라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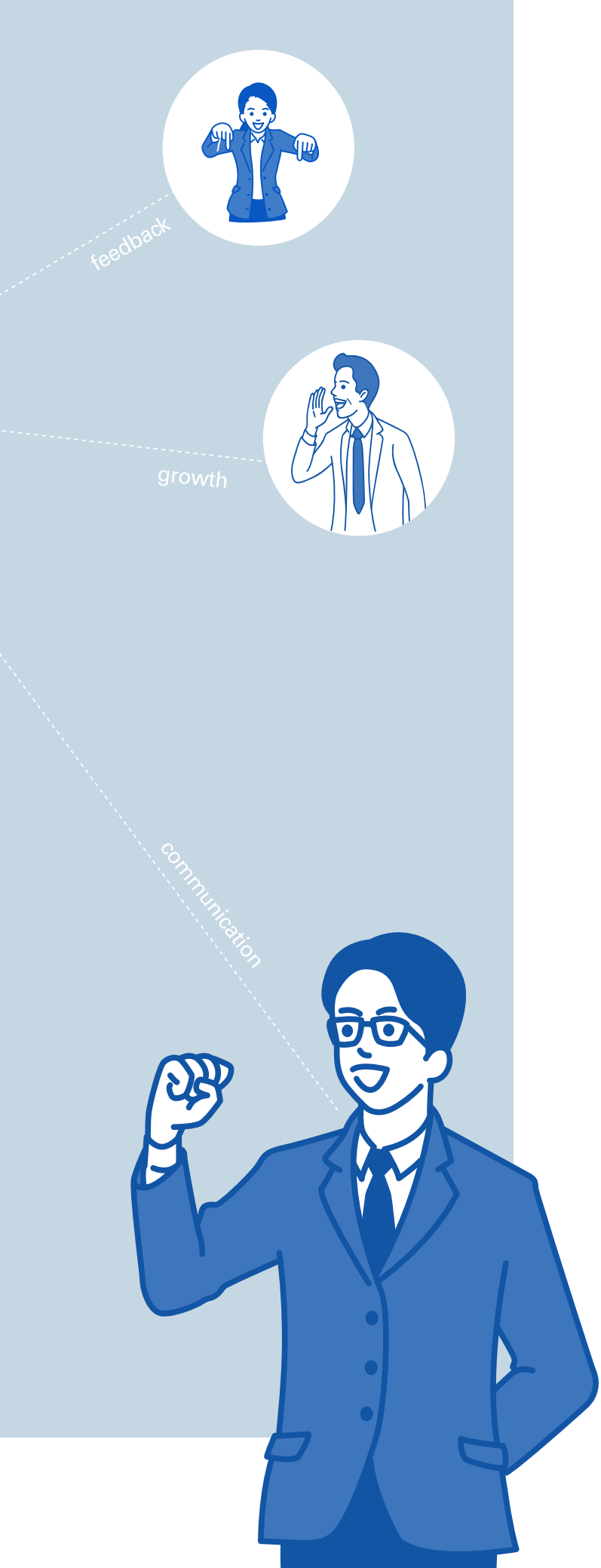
챌린지 후 김성규 조장은 허민승 조장과 영남알프스 9봉 인증에도 도전해 성공했다. 챌린지를 계기로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며 스스로 활력을 찾고 있는 것이다. 김성규 조장은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좀 더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소통의 3가지 키워드

정보 격차, 신뢰, 성장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조직에 있어서 소통은 수단이 아니라 존재 양식 자체'라고 썼다. 조직과 문화는 소통을 떠나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나사는 어떻게 일하는가》를 저술한 찰스 펠러린(Charles Pellerin) 박사 역시 "조직 실패의 80~95퍼센트는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MZ 세대가 다수인 직장에서 효과적인 소통은 분명 20세기와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바람직한 조직 내 소통의 모습을 '정보 격차', '신뢰', '성장'이라는 3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본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이는 정보의 소통

몇 년 전 한 글로벌기업에서 사내 업무 소통 수준에 대해 분석했다. 그랬더니, 여러 프로젝트팀 중 30%에서 평균 대비 1 표준편차만큼만 소통 수준을 개선해도 한 해 2,200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통이 생산성에 직결되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소통의 비효율 때문에 보이지 않게 생산성이 얼마나 희생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소통의 핵심은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조직 안에는 직책이나 직무 특성상 남들보다 먼저 중요한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을 때 정보의 격차가 생긴다. 간편 송금으로 유명한 토스(Toss) 서비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 회사에 대표만 아는 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것이 어쩔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하는데, 내부 정보 격차마저 심하면 구성원들은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정보 격차를 줄이는 소통은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인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들이 아무리 바빠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어디서 어디까지 공유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직구성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질문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주도록 하자. 타운홀 미팅도 좋고 티타임도 좋다. 그럴싸한 형식보다 소통의 내용이 중요하다.

타운홀 미팅은 규칙이 없는 것이 바로 규칙이다. 발언, 질문, 찬성, 반대가 모두 자유로워야 한다. 타운홀을 잘하는 방법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충분히 자주 하는 것이다. 한 해에 두 번 정도 하는 타운홀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통이 원활하다고 자부하는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타운홀을 한다. 전 직원이 매주 모이기가 어려우면, 전 직원 타운홀과 조직별 타운홀을 적절히 번갈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질이 높은 소통의 키 '신뢰'

소통의 양이 확보되면 질도 챙겨야 한다. 소통의 질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은 '신뢰'다. 누군가와의 소통에 대해 구성원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소통의 질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소통의 신뢰는 메시지의 내용보다 소통의 주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같은 내용이라도 A가 얘기하면 미덥지 못한데, B가 얘기하면 믿음이 가는 경우다. 사실 이것은 약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의 저서 『수사학』에 언급한 설득의 3요소 중 '에토스(ethos)'가 바로 '화자(話者)에 대한 신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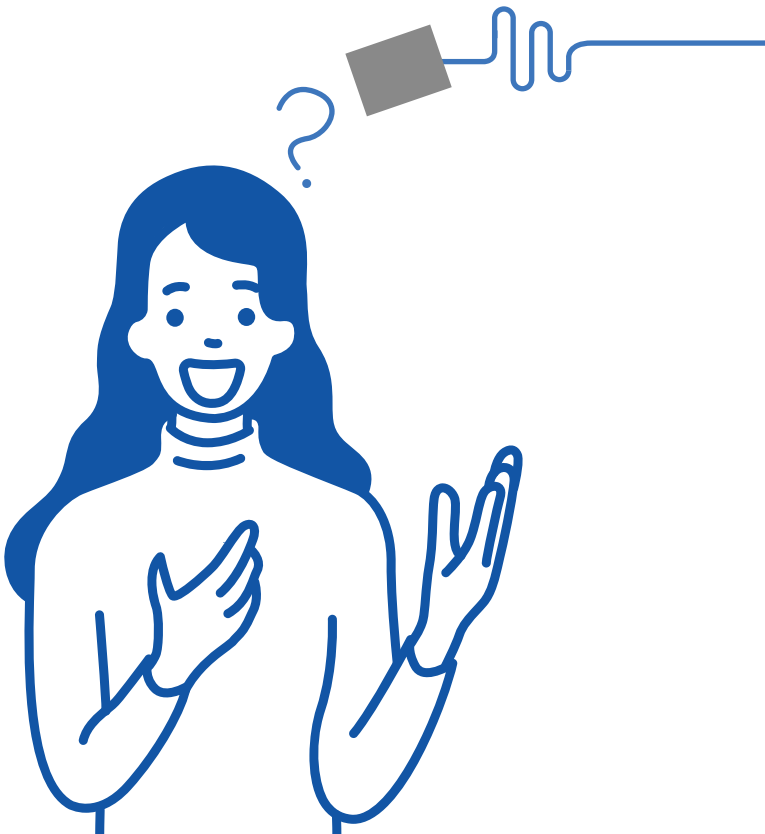
스마트하고 언변도 좋은데 사람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면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평소 신뢰를 쌓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 신뢰를 쌓는 소통을 위해서는 소통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로 서야 한다. 평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신중한 소통 태도를 갖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신뢰를 깎아 먹는 지름길이다. 오늘 얘기가 어제 얘기와 다르면, 구성원들은 '내일은 또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의 신뢰 점수를 깎아 먹는 최악의 소통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며 추궁하는 것이다. 직원의 업무 결과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을 때 그 책임을 온전히 직원에게 묻는 경우다. 직원은 처음에 "분명히 하라고 하셔서 했다"는 식으로 응수하지만, 소용이 없다고 느끼면 체념하고 입을 닫아버린다. 리더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말로 던진 얘기 또는 아이디어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지시'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챙겨야 할 중요 사안이라면, 간단하게라도 글로 써서 근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소통은 '피드백'에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소통도 중요하다. 이는 특히 최근 MZ세대가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과 관련 있다. 세대 학자들은 요즘 젊은 직장인의 특징 중 하나로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는 것을 꼽는다. 그들은 성장에 대한 욕망도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궁금해 한다. '평생 직장'보다 '평생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일을 통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이다.

성장을 위한 피드백 소통의 중요성은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최근 조직 변화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전통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서는 업무 관련 소통이 '지시-보고' 위주였지만, 수평적인 문화에서는 '위임-피드백' 중심으로 가고 있는 점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관리자들의 역할도 그에 따라 '통제'에서 '육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피드백 효과 높이는 소통

즉시성

구체성

긍정성

> 아무리 좋은 의도의 피드백이라고 해도, 시의적절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거나, 너무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할 경우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하지만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심리학과 케빈 옥스너(Kevin Ochsner) 교수가 기업에서 이뤄지는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 실증 분석을 행한 결과, 30%의 경우는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30%는 성과 변화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40%는 오히려 성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원인이 무엇일까? 피드백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3가지 특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즉시성', '구체성', '긍정성'이다.

'즉시성'은 피드백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업무 관련 행동이나 결과가 나타난 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피드백을 하면 '망각 효과' 때문에 제대로 된 피드백이 되기 어렵다. 직원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기다리면서 걱정이나 억측을 하느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경우도 많다. 적절한 피드백 주기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90년대생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드백 받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가 있다.

피드백을 자주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직원이 느끼기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은 '내가 일하는 방식이나 행동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흔히 '지식', '스킬', '태도'로 나누어 보는데, 그중에서도 태도, 자세, 동기 등 소프트한 측면에 대한 피드백이 문제다. 이런 부분일수록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어렵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너무 부정적인 톤으로 피드백할 경우, 직원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가 된다. 피드백에 대해 직원이 뭔가 '변명'을 하고 있다면, 그 피드백으로 인해 행동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라기보다 업무에 대한 평가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드백할 때는 우선 이것이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뼈 때리는 지적은 반드시 팩트를 제시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에 집중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피드백이라고 해도, 시의적절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거나, 너무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할 경우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글 **김성남**

HSG휴먼솔루션그룹 전문교수. 인사, 조직, 리더십 관련 강의, 코칭, 컨설팅을 하고 있다. 『미래조직4.0』, 『수평조직의 구조』, 『아직 꼰대는 되고싶지 않습니다』를 썼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성우라는 기적을 만나다

첫 번째 이야기 • 오준택 이사(신차품질사업부장)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사회 분위기마저 우울감에 젖어 들던 지난 4월.
성우하이텍 서창 본사에서 가슴 울컥한 기적이 일어났다.
동료애에서 비롯한 관심과 발 빠른 판단, 적극적인 처치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
성우인의 가슴에 뜨거운 파문을 일게 한 이야기를 전한다.

MIRACLE

동료에 대한 관심, 최악의 사태를 막다

>> 4월 21일 아침, 오준택 이사의 상태는 평소와 달랐다. 식은땀을 흘리고 낯빛도 어두웠다는 그날, 오준택 이사는 강태용 이사(품질사업부장)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다. 탕비실에서 만났을 때부터 심상찮은 오 이사의 상태를 관심 있게 지켜본 강태용 이사는 내내 오 이사를 주시하며 쉴 것을 거듭 권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보통은 쉬라고 얘기하는 정도에서 그쳤을 거예요. 제 일이 있으니 곧장 업무를 하러 자리로 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탕비실에서도 그랬고, 빈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쉬는 걸 보면서도 그랬지요. 눈앞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못 쉬는 걸 보니…. 그때 곧장 제 자리로 돌아갔더라면 어땠을까, 오 이사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강 이사는 곧바로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 119에 신고하고 안전환경팀에게 연락했다. 거의 동시에 심폐소생술과 전신 마사지가 진행되었다. 이들의 연락을 받은 안전환경팀이 금형공장까지 오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안전환경팀은 도착 즉시 심폐소생술을 이어 실시하였고, 금형공장 사무동 입구에 구비된 심장제세동기(AED)를 사용하여 심정지를 막았다.

성우 어벤져스,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 안전환경팀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신 마사지를 하는 사이, 신고를 받은 119가 도착했다. 한번 멎은 심장이 다시 뛰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 4분 안에 결정된다. 주변 동료들과 안전환경팀 직원들의 적절한 응급조치가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오 이사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신고를 받았을 때부터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려보며 대응한 안전환경팀의 판단이 주효했다. 심장을 한 번 멎게 했다 강한 충격을 주어 다시금 뛰도록 하는 제세동기 사용도 신의 한 수였다. 안전환경팀 문병생 차장에 따르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처치이다. 보통 심장 압박을

할 때에는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깊이, 세게 해야 하는데 의료진도 아닌 일반인에게는 버거운 일이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을 주는 것에 겁을 먹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10분을 연속해서 하기도 힘들다.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이고 과감한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질지언정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2021년 봄 오 이사가 만난 기적. 그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성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배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만들어낸 기적 다름 아니다.

성우인이 한마음으로 만든 기적

>> 동료 직원들과 안전환경팀의 긴박하고 적극적인 처치는 후송 과정과 병원 도착 후에도 이어졌다. 먼저, 119 매뉴얼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했지만 오 이사의 경우 상태가 아주 위중하여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치료에 더 도움이 될 터였다. 매뉴얼과 달리 더 먼 곳으로 이송하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이때 도종복 부사장은 망설이지 않고 오 이사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토록 했다.

병원 도착 후 의사가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 데도 성우인은 큰 역할을 하였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담당 의사는 오 이사의 상태를 보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승압제 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가족들을 급하게 호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함께 응급실에 간 안전환경팀 직원이 경련 시작 때부터 응급조치를 한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심정지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을 확인해주었다. 그제야 의료진은 고용량 승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며 적극적인 회생 치료로 변경하였다. 천만다행으로 다음 날 의식을 회복한 오 이사는 이후에도 양질의 치료와 굳은 의지로 완벽하게 회복하여 9월에 복직할 수 있었다.

2021년 봄 오 이사가 만난 기적. 그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성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배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만들어낸 기적 다름 아니다.

긴박했던 4월 21일의 기록

오전 8시경
금형공장, 신차품질1팀 강태용 이사가 오준택 이사의 이상 상태 발견

>>

8시 20분경
빈 사무실로 오준택 이사 이동시키고 상태 체크

>>

8시 30분경
- 탁자에 누워 있던 오준택 이사, 경련 시작
- 강태용 이사, 주위 직원에게 알리고 안전환경팀 연락 및 119 신고. 동시에 심폐소생 진행

8시 34분경
연락받은 안전환경팀 서창공장에서 금형공장 도착, 제세동기 확보

>>

8시 34분경~50분경
- 안전환경팀, 119 도착 전까지 간호사와 함께 상태 체크
- 제세동기 충격·심폐소생 지속 진행

>>

8시 50분경
- 119 도착, 구급차 후송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 결정

9시 20분경
- 병원 도착 → 의료진, 가망 없다 판단하여 승압제 투여 중지
- 안전환경팀, 의료진에 골든타임 사수 내용 전달 → 회생 치료로 전환

>>

4월 22일
오준택 이사, 의식 회복

오준택 이사가 전한
감사의 인사

제게는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런 큰 자리를 마련해주신 회장님의 깊은 뜻에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평소 건강관리에 무관심했습니다. 특별히 건강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지요.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담배와 술은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오며 별 문제가 없었고, 더구나 심혈관 계통 쪽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 제가 심혈관 문제로 생사를 넘고 보니 평소의 건강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낸 20일 정도의 시간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보름 정도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의식과 무의식을 오고 갔습니다. 몸속 혈액을 모두 빼내어 산소를 공급한 후 주입시키는 에크모 장비도 3일간 달고 있었지요. 그 치료를 할 때마다 느낀, 칼로 살을 한 점 한 점 에는 고통을 어떻게 다 설명할까요. 기적처럼 살아났으면서도 선망 증세에 시달리다 못해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가 제 발로 걸어 병원을 나오고 이렇게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으니 기적 아닌 다른 말로 설명이 힘들겠지요.

다시 태어난 저는 모두 우리 성우 가족이 만들어주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상태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강태용 이사님, 심폐소생술을 하며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해주신 글로벌신차팀과 신차품질1팀 동료들, 안전환경팀 담당자분들, 후송 시 빠른 판단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도종복 부사장님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분들의 노력이 모여 오늘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성우 가족에게 건강관리와 위급 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해야 하는데 환자를 대하다 보면 선뜻 그러기가 힘듭니다. 의료진도 아닌 일반인이라 겁도 나겠지요. 제 일을 계기로 회장님께서 지시하여 심폐소생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 상황에 대해 지속적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 정준오 차장(원가1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집어삼킨 지난 2년. 성우가족이라고 그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아닌 먼 이국에서 코로나 확진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질 것이다. 러시아 출장 중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원가1팀 정준오 차장 역시 그랬다.

타국에서 맞닥뜨린 죽음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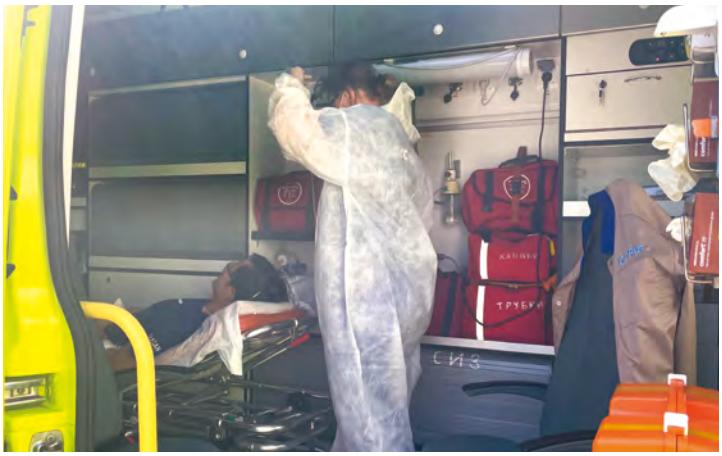
>> 지난해 6월 정준오 차장은 러시아 현지 고객사와 신차 부품가 조율을 위해 출장 중이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던 시기였으나 러시아 상황은 그와 정반대였다는 당시, 정 차장은 업무 시 마스크를 쓰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했다. 그러나 입국 열흘 정도가 지난 후 몸에서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잦은 기침과 고열이었다.

"처음엔 몸살인가 싶어 한국에서 준비해 간 약을 먹었는데, 낫질 않더라고요. 혹시 하는 마음에 준비해 간 간이키트로 검사를 했어요. 함께 출장을 간 김현진 대리는 음성이, 저는 양성이 나왔죠. 곧장 현지 병원에서 PCR 검사를 했고, 우리 두 사람 모두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증상이 경미해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정 차장은 곧바로 현지 입원이 되지 않아 홈닥터의 처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다. 홈닥터의 권유로 현지 병원에 입원한 것은 확진 판정 후 5일 만이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러시아에서의 치료 예후는 좋지 않았다. 점차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본사 측의 결단이 필요했다.

"3미터 거리의 화장실조차 혼자 힘으로 가기 버거웠어요. 러시아의 의료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열악하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러다 정말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내와 딸아이들 생각에 그때부터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풀코버 공항 대기중인 구급차



항공기 탑승 완료

쉽지 않은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 차장이 심리적 불안으로 불면증까지 겪는 사이, 성우하이텍 본사와 러시아 법인은 에어앰뷸런스(환자 이송용 비행기)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었다. 현지에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이명근 회장이 국내 이송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최대한 빨리 섭외하려 노력하고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쉽지 않았고,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아까워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갔다.

"그나마 영상 통화로 가족들과 연락했는데, 통화할 때마다 눈물 바람이었죠. 아내는 직접 총무팀에 연락하고 근처 절에서 108배까지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끼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입원 후 엿새, 기다리던 에어앰뷸런스에 몸을 실었다. 정 차장은 에어앰뷸런스에 설치된 음압 장치 안에서, 같이 확진을 받은 김 대리는 상대적으로 몸 상태가 양호해 일반 의료침대에서 의료진과 함께였다. 그리고 13시간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제야 벅찬 감동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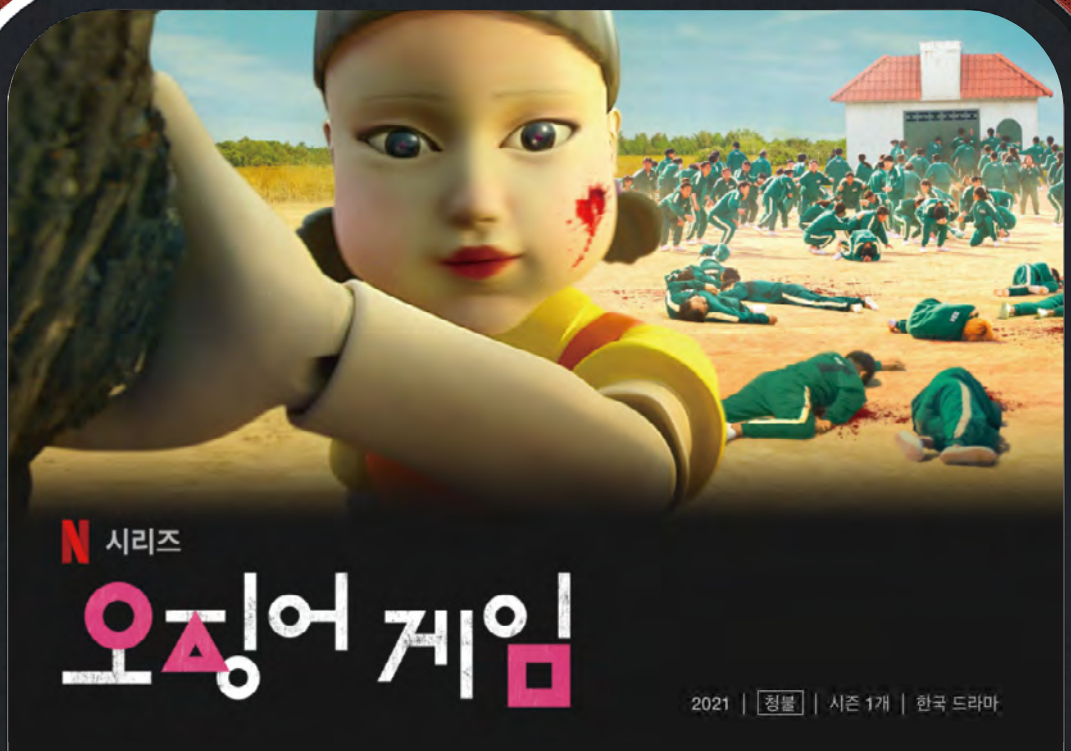
성우하이텍은 1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된 정 차장의 국내 이송 결정에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확진받은 직원 역시 1천 7백여만 원을 투입하여 이송한 바 있다.

"에어앰뷸런스 섭외에 큰 비용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속한 결정과 대처로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신 회장님 이하 임직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새 삶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맡은 일은 잘 해내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항공기 및 구급차 사진

출장국가	확진일	확진자 수	귀국조치 현황	비용
인도네시아	6.15	2명	현지 한인회 주관 전세기편 후송	1700여만 원
	6.24	1명		
러시아	6.29	2명	에어앰뷸런스 긴급 섭외 후송	1억7천여만 원

'죽음'을 떠올릴 정도의 극한 상황을 맞닥뜨린 순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만큼 힘이 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성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며 발 빠른 실행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준 성우하이텍의 대처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K-콘텐츠,

OTT 시장에서 날개를 달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달리고 멈추기를 반복한다. 글로벌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서는 달고나가 불티나게 팔리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한국 추억의 놀이를 즐기는 해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반향이다.

*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 재생

글로벌 시장에
K콘텐츠의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아이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거 움직이기 시작한다. 머리가 360도로 돌아가는 커다란 모형 인형이 뒤를 돌아 움직이는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총성과 함께 여기저기서 참여자들이 쓰러진다.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싸늘한 시체가 된다. 'Fly me to the moon'의 달콤한 선율과 사람들의 처절한 눈빛이 대비되어 대학살 장면은 더욱 기괴하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황동혁 감독은 2008년 처음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첫 번째 게임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염두에 두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이 놀이를 수백 명의 군무로 담아내면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의 성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한국문화의 소비 신드롬을 일으켰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 곳곳에서 현실판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프랑스 한류 체험 카페에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섰다. 드라마의 인기가 한국 문화에 대한 소비로 되돌아온 것이다.

지난 9월에 처음으로 공개되어 53일 동안 1위를 기록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구독자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공개 23일 만에 2분 이상 시청한 사람이 1억 3200만 명에 이르며, 이 기간 동안 시청자 66퍼센트는 모든 회차를 정주행"했다.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의 성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한국문화의 소비 신드롬을 일으켰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 곳곳에서 현실판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프랑스 한류 체험 카페에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섰다. 드라마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외에도 딱지치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등 여러 한국 놀이가 등장하여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와 동시에 라면과 소주, 달고나 같은 K-food도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가 한국 문화에 대한 소비로 되돌아온 것이다.

OTT,
세계 안방에서 펼쳐지는 극장

O V E R T H E T O P

<오징어 게임>은 지난 11월 29일 한국 드라마 최초로 '고섬 어워즈(Gotham Awards,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에서 '40분 이상의 획기적 시리즈' 상을 받았다. 이어 12월 7일에는 '2021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People's Choice Awards)'에서 '올해의 정주행 쇼'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또한 미국방송영화비평가협회가 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Critics Choice Awards)'에 후보로 올랐으며, '골든글로브(Golden Globes)'에서 최초로 남우조연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요인에는 <배틀로얄>과 <헝거게임>과 같은 콘텐츠인 '데스게임'을 주제로 잡은 덕도 있겠지만, 한국 문화의 저력이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국 배우 윤여정이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고 각종 시상식에서 42관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으며,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현대판 비틀즈 BTS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성과가 이를 증명한다.

<오징어 게임>을 포함한 K콘텐츠가 각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배경으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뜻의 OTT 서비스는 초기에 인터넷 단말기를 통해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작하였는데, 인터넷 기기들이 발달하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까지 유통 영역을 넓혀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OTT 서비스가 시청자들의 안방극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TV(Apple TV) 등의 글로벌 OTT 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다. 국내 OTT 서비스인 왓챠(WATCHA), 티빙(TVING), 웨이브(wavve) 등도 구독자를 잡으려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각 OTT 서비스는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

<오징어 게임>을 포함한 K콘텐츠가 각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배경으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뜻의 OTT 서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시청자들의 안방극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종이의 집>

OTT 시장의 확장과 K콘텐츠의 미래

위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K콘텐츠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 인기작 <종이의 집>, <퀸스 갬빗> 등의 성공 사례처럼, <킹덤>,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 드라마도 막강한 존재감을 자랑한다. 게다가 인기와 더불어 드라마 속 등장하는 의류나 음식, 화장품 등이 함께 조명을 받고 있다. 파생상품과 문화적 소비를 이끌어 내는 힘을 가진 K콘텐츠를 향한 글로벌 OTT 서비스의 러브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외 OTT 플랫폼

<오징어 게임>은 한국 문화 신드롬과 함께 넷플릭스의 수익 독식 구조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지원하고 작품의 형식이나 수위 제한이 없어 창작자로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작품이 흥행하여도 제작사에 비례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저작권과 판권, 해외 유통권까지 말 그대로 싹쓸이하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총 253억 원의 제작비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냈지만 아무리 수익이 크더라도 국내 제작사로서는 작품의 인기 외에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K콘텐츠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켰다.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해외의 제작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국내 제작사로서는 더 나은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동시에 국내 OTT에 대한 해외 투자도 늘고 있다. 다양한 글로벌 OTT가 국내에 진출하여 각축을 벌인다면 앞으로 국내 제작사는 유리한 환경에서 마음껏 작품을 제작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글로벌 OTT를 기반으로 세계 곳곳에 K콘텐츠와 함께 더 많은 한국의 문화들이 스며드는 날을 기대해 본다.

골목골목 틈새마다

Go on alley trip

새겨진 이야기

마을마다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던 좁은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골목이어야 가능했던 다양한 관계와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집과 집, 건물과 건물,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골목의 틈새처럼 이렇게나 가까웠답니다. 좁은 골목길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까움입니다. 빡빡한 우리 삶 속 서로를 허용하던 거리, 어쩌면 소통의 틈새였나 봅니다.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골목은 소통을 되돌아보는 은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 집 앞으로 이어지던 그런 골목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애써 시간을 내어 여행에 나서는 길, 그곳에서나마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의 골목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재미는 여행의 소소한 즐거움이 됩니다. 방문객을 맞이하려고 이쁘게 단장을 한 골목, 옛 분위기를 자아내는 꾸밈없는 골목, 낡고 색이 바래서 마치 허리 굽은 노파를 떠올리게 하는 골목….

골목의 다양한 모습은 여행의 또 다른 시각이 됩니다. 가끔은 넓고 멀리 보던 시야를 좁혀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여행을 즐기는 방법이 됩니다. 관광지나 여행지에서 쉬 지나칠 수 있는 골목처럼, 평범한 풍경에서 소소한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쉽사리 눈길이 가지 않던 무심한 골목길을 들여다보면서, 여행 속 색다른 한 장면을 써 내려가 볼까요?

핫플레이스가 된 원도심의 골목길

흰여울길
(흰여울문화마을)

피란민들의 애잔한 삶이 시작된 이곳이 현재는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을공동체'가 되었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흰여울길은 봉래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흰 눈이 내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2011년 12월 낡은 가옥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영도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나 다양한 카페와 식당, 그리고 공예품과 액세서리를 파는 골목상권이 생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쪽 바다를 향해 마치 절벽처럼 자리하여, 여느 골목처럼 벽과 벽 사이의 막힌 골목이 아니라, 집들과 바다 조망 사이로 골목길이 펼쳐진다. 이것이야말로 흰여울길이 지닌 독자적 자랑거리이다. 천마터널 방향에서 부산항대교를 타고 넘어오며 보이는 해안 절경 위의 마을 모습이 이채롭다. 마을 아래쪽으로 '절영해안산책로'가 있고 마을과 서로 이어지는 계단길이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에 절로 입이 벌어진다. 중·대형 선박들이 마을 앞바다에 떠 있는 이색적인 모습이다. 이곳이 바로 부산 남항 외항의 '묘박지(錨泊地)'이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화물선이나 원양어선, 선박 수리나 급유를 위해 찾아오는 선박들이 닻을 내리고 잠시 쉬는 이곳에는 하루 70~80척 내외의 배들이 머무른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 마을로 더욱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영도에 오면 꼭 들려야 할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소 운영시간
09:00 - 17:00

주차시설
절영해안산책로 입구 공영 주차장 (유료)

문의·안내
051-419-4067

홈페이지
http://www.ydculture.com/huinnyeoulculturetown/

재개발 틈새에 남겨진
이색적인 골목

미포 달맞이길 50번길

해운대와 송정을 잇는 동해남부선 옛 철길은 해안가에 밀접하여 가장 아름다운 철길로 꼽히곤 했다. 새 선로가 건설되며 자연스레 폐선되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재개발을 통해 '블루라인파크'라는 해변 열차로 재탄생하였다. 최근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다시금 활력을 되찾은 것이다.

늘 사람이 북적이는 이곳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 이색적인 분위기를 품은 공간이 숨겨져 있다. 블루라인파크 건너편 고층빌딩 옆 '미포 골목(달맞이길 50번길)'이다.

국내 최고층 빌딩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유명 빌딩. 그 옆으로 허름한 골목이 삐죽이 틈을 보인다. 들어서고 보니 허름해 보이기만 하던 비좁은 골목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대한 빌딩과 이질적이지만 조화를 이루며 골목안 프레임에 담긴다. 세월을 품은 옛 동네가 리뉴얼을 통해 거듭난 모습이다. 음식점과 카페, 액세서리 가게 등 아기자기한 소품과 볼거리로 무장한 이곳은 여행객들의 눈길을 붙들기에 충분하다. 가게 사이사이로 여전히 일상을 꾸려가는 가옥이 섞여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독특하고도 이국적인 이 골목만의 분위기와 볼거리는 이미 SNS를 타고 소문이 나 찾아오는 발길도 많아졌다. 골목상권을 이룬 다양한 가게는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추천한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운대 미포~청사포~송정에 이르는 4.8km 구간의 동해남부선 옛 철로를 재개발하여,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운행하는 부산, 해운대 관광특구의 핵심 관광 시설이다. 해변열차는 수려한 해안 절경을 따라 교통수단과 관광열차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스카이캡슐은 4인승으로 7~10m 높이의 공중 레일에서 해안 절경을 관람하며 해운대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2km 구간을 자동 운행한다.

철길은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과 일본인들의 관광을 위해 건설된 아픈 역사가 있다. 해방 후 최근까지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며 부산 시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기도 했다. 이제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간직했던 추억을 들춰보게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다.

문 의 051-701-5548
홈페이지 http://www.bluelinepark.com/

죽성드림세트장(죽성성당) 너머
작은 어촌

두호마을 골목길

기장 죽성리의 '드림세트장'은 드라마 <드림>의 세트장으로 지어져, 드라마보다 유명한 촬영 명소가 되었다. 해안의 갯바위와 어우러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포토존으로 명성을 떨치며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곳의 랜드마크가 된 드림세트장의 인기에 비해 정작 세트장이 자리 잡은 두호마을은 여행객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구즌비 개단말가 흐리던 구름 걷단말가.
궂은 비개었단 말인가, 흐리던 구름 걷혔단 말인가.
압내희 기픈소히 다 묽앗다 ᄒᆞᄂᆞᆫ다.
앞 내의 깊은 물이 다 맑았다고 하는구나.
진실로 묽디옫 묽아시면 갇긴 시서 오리라.
진실로 물이 맑디맑아졌다면 나의 갓끈을 씻어 오리라.

윤선도 <우후요(雨後謠·비온 뒤 노래)>

고산 윤선도는 두호마을에서 7년간 유배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두호마을에서 우후요(雨後謠·비온 뒤 노래), 견회요(遣懷謠·마음을 달래는 노래), 아우를 보내며 등 6수의 시조를 남겼다. 당시 이곳 사람들이 고산을 서울에서 온 의원님이라 부르며 따랐단다. 마을 뒤 봉대산에서 약초를 캐어 병자들을 보살피곤 했기 때문이다.

두호마을은 전형적인 어촌의 마을로, 나지막한 집 사이로 골목이 굽이져 있다. 골목에는 드문드문 벽화가 보이지만 벽화마을로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어촌마을의 골목을 꾸밈없이 거닐어 보는 데 참 의미가 있다.

두호항을 중심으로 남쪽에 두호마을이 있고, 마을 앞바다를 향해 드림성당이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시원하게 바람을 맞고 서 있다. 주변에는 메바위섬, 놀래미섬, 꼭두방섬이 회화와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인근에는 오래된 토성과 두모포 진성 터가 있어 드림성당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주말마다 부산 시민들이 즐겨 찾았다. 해안도로가 정비되고, 독특한 형상의 등대가 설치되는 등 찾는 이들에게 접근성과 다채로운 모습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남겨진 어촌마을의 원형을 품은 곳으로, 한 번쯤 찾아가 볼 만한 곳으로 추천한다.

위기의 시대를 비추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수급에
지속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혈이 필요한
긴급환자에게는 헌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와 함 께 하 는 헌 혈 나 눔 레 이 스

국내 혈액 보유량 빨간불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후 2년여. 보건 의료, 경제 등 사회 전반적 분야로 위기가 퍼져나갔다. 국내 혈액 보유량에 비상이 걸린 것도 그러한 위기 중 하나이다.

의료기관에 공급 가능한 재고 혈액량과 검사대기혈액 재고량을 합쳐 '혈액 보유량'이라고 하며, 일수로 표현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적정혈액 보유량'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일평균 5일분이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외출 및 집합자제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요동쳤다. 주의 단계인 3일분을 못 미치는 2.8일분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헌혈의집 방문에 의한 헌혈 감소와 단체헌혈 취소가 급증한 까닭이었다.

이처럼 혈액 보유량이 적정선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며 긴급한 경우 외에는 대처가 어려워진다. 또한, 재난, 대형사고 등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심각한 혈액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기를 헤쳐 나가는 아이디어와 성우가족의 동참

이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방안 및 홍보대책 등을 전달하고, 정부, 공공기관, 군부대 등의 적극적인 단체헌혈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헌혈자 대상 동참 호소 문자 발송, 다양한 헌혈 참여 이벤트,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월 3~7일 진행된 제23회 부산마라톤대회를 맞아, 참가 신청 기간에 헌혈한 뒤 헌혈증으로 참가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다. 성우하이텍 임직원은 그에 발맞추어 10월 26일 서창 본사와 금형공장 앞에서 진행된 현장 헌혈에 적극 참여했다. 헌혈 버스 2대가 동원된 이날 헌혈 행사에 참여한 성우인은 100여 명에 이르렀다.

"별다른 고민 없이 헌혈증으로 참가비를 대신하기로 했다. 혈액이 없으면 중증 환자가 수술을 못 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헌혈로 생명을 살리고 마라톤으로 내 건강도 관리할 수 있으니 헌혈증을 참가비로 대신한 아이디어가 멋지다."

헌혈에 참여한 한 참가자의 말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빛난 성우가족의 따뜻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

관심(Blue)
- 혈액수급 부족 징후
- 적혈구제제 5일분 미만

주의(Yellow)
- 혈액수급 부분적 부족
- 적혈구제제 3일분 미만

경계(Orange)
- 혈액수급 부족 지속
- 적혈구제제 2일분 미만

심각(Red)
- 혈액수급 부족 규모 확대
- 적혈구제제 1일분 미만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A to Z

매년 가을 성우하이텍이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행사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의 영향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올해의 행사.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A to Z'를 통해 모든 것을 알아본다.

겨 울 愛 애 희 망 饌 찬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어떤 행사인가요?

2012년부터 매년 가을마다 마련되는 성우하이텍 김장나눔 행사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성우하이텍의 대표적인 나눔 행사입니다. 성우하이텍은 김장에 필요한 절임 배추 구매 비용 및 양념류 일체의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 날에는 성우인이 직접 김장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오전 이른 시간 쌀쌀한 가을바람이 맴도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 '겨울愛(애) 희망饌(찬) 김장나누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성우공동모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우공동모금은 성우 임직원 1,000여 명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만든 기금입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하는 이 기금은 반찬 나누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돕기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김장 행사는 누구와 함께하나요?

● 매년 '웅상나눔회' 회원과 '사단법인 희망웅상' 회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성우하이텍 임직원들과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김장 담그기 일주일 전부터 고춧가루와 마늘 등 각종 재료를 구입해 김장 양념을 준비해주십니다. 당일에는 성우인과 함께 김치를 버무리지요. 벌써 10년째 함께하다 보니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올해도 70여 명의 성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장 담그는 날 성우인들의 역할은?

● 김장 담그는 날 성우인들은 누구보다 바쁩니다. 한쪽에 쌓인 절임 배추는 그야말로 산처럼 보이고 한 가득인 양념통만 봐도 숨이 턱 막힐 정도이지요. 그래도 성우인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절인 배추를 옮기는 것부터 양념장을 퍼 나르며, 직접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일까지, 현장에선 팔방미인으로 통합니다.

코로나 시대, 올해 김장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코로나19로 이웃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우하이텍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올해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많은 참가자가 밝은 미소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 장 나 누 기

김장은 누구에게 전해지나요?

● 지역 결식 우려 아동, 다문화 가족 및 이주노동자, 노인무료급식소에 김장 김치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로 행사가 10년째 이어지는 것이지요.

화사한 분위기로 업그레이드~

서창 본사 식당 리뉴얼

서창 본사 성우가족이 하루 한 번씩은 찾게 되는 곳, 6층 식당이 지난여름 한층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식당을 둘러보며 바뀐 면모를 살펴보자.

전자 화면 형태로 바뀐 메뉴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자 화면 형태로 바뀐 메뉴판이다. 식당 입구에 마련된 메뉴판은 그날의 메뉴를 보여주는 안내판으로, 식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다. 식당을 이용하는 성우가족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이 메뉴판이다. 작은 종이에 인쇄하여 보여주던 이 메뉴판이 커다란 전자 화면 형태로 바뀌었다. 덕분에 어떤 메뉴가 준비되었는지 눈에도 훨씬 잘 띄고, 화면에 띄운 음식은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깔끔하다는 인상을 주어 입맛이 돌게 한다.

이와 함께 식기 반납대도 기존의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 성우가족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카페테리아 공간과 PDR룸

자리가 몇 개 없어 아쉽게 느껴지던 카페테리아 공간은, 원탁 테이블을 3개 더 설치하여 좀 더 많은 성우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가구를 배치하면서 기둥까지 손보았으며, 이런 공간의 변화로 훨씬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기에 더해 PDR(Private Dining Room)을 새롭게 마련하여, 식사를 하며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간편식 선택도 가능

이번 식당 리뉴얼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간편식 메뉴가 새롭게 생겼다는 점이다. 원하는 사람은 식사 대신 카페테리아에 마련된 간편식 코너에서 두 가지 구성 중 하나를 선택해 먹을 수 있다. 시리얼, 빵, 견과류, 우유로 구성된 '간편식 A'와 선식, 구운 계란, 우유로 구성된 '건강식 B'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서 가벼운 식사를 원하는 성우가족이 이용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의
45년 역사를 찾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성우하이텍이 창립 45주년을 맞습니다.
이에 지난 45년 동안 성우하이텍과 함께해온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성우하이텍과 함께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료와 수기를 보내주세요.

공모기간

2022. 2.1~ 2022. 5. 31

공모대상

사진, 발간물, 기념품, 광고물, 서류 등 형태 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와 그에 관련된 짤막한 일화
ex) ○○팀, ○○○
1989년 '불국사관광호텔'에서 진행된 신입사원 연수 당시.
신입사원 시절 긴장한 모습의 풋풋했던 한때

제출방법

우편 :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 3길 50
M. 010-3591-0680 T. 070-7477-6233
E. happymhj@swhitech.com

성우하이텍

호랑이 기운으로 "어흥!"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SUNGWOO HITECH

국내

㈜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타,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아산성우하이텍, ㈜성우홀딩스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인도SHA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